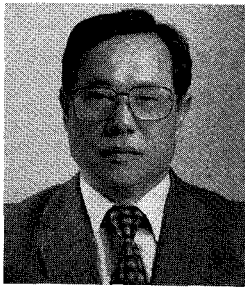




수입 닭고기 유통경로 철저한 조사를



최 원 악
(초원농장 대표)

현 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닭고기의 30%가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며, 수입량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금년에는 육계가격이 생산비선 이하의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수입물량이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중국으로부터 냉장상태의 부분육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는 등 앞으로의 수입닭고기 확대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닭고기가 증가할 수록 늘어가는 수입량 만큼 국내 육계산업은 허물어지고 결국 육계 농가들은 도산하거나 생업을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분명 자살행위가 아닐 수 없다.

냉동 수입닭고기가 처음으로 공매를 시작하여 수입될 당시인 1995년 이전까지만해도 이

미 냉동육(절단, 통닭)을 제외한 품목이 이미 개방되었지만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부터 20%의 관세를 설정하여 쿼터제로 공매를 시작할 당시부터 육계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모 계열업체까지 참여하면서 수입열기를 부추겼다. 또한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닭고기 수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육계인들은 양계산업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는 업체들까지 수입에 압장서자 이에 반발해 양계협회를 통해 수입 자제요청을 하는가 하면 모 계열업체에 항의방문을 한바 있으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불매할 것을 통보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업체는 서면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 수입자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1997년 7월 이후 전면 수입자유화가 단행된 이후 해가 바뀌기가 무섭게 수입육의 국내점 유율은 점점 높아져 30%선까지 다다르게 되었으며, 육계업 관련 업체들은 가격경쟁의 논리를 앞세워 수입을 더욱 늘렸고 현재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 닭 취급 음식점에서 알게모르게 수입닭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들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육계업의 불황을 조기에 타개하고자 생산조절, 수입자제 등 수급불균형을 극복하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빈번해진 호소만큼 결과는 더욱 나빠지는 듯 싶다. 원종계, 종계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계감축 협상을 지켜볼때 안타까움이 앞선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장래 육계산업은 물론 원종계, 종계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현재의 불황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금년 8월에 좋은 실예를 경험했다. 일시적인 요법이었지만 병아리 렌더링 처리는 분명한 교훈을 주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같은 의지는 가격이 다시 오르는 듯하면 감추어지고 어려워지면 나타나는 미봉책(彌縫策)으로만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으로 본다. 국내의 육계산업이 흔들리는 만큼 경쟁력은 더욱 나빠지고 수입닭고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압박해 올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닭고기는 전면 수입개방이 된 상태이며, 세계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 농업국가들에게 무관세라는 무서운 무기로 다가서고 있다. 즉, 세계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렇지만 수입육 닭고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닭고기에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를 판매하는 식당이나 점포에는 외국산 닭고기 취급점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시 강력한 제재(영업정지 등)를 가할 수 있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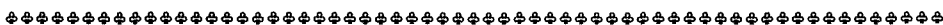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닭고기를 재 포장하거나 음식점에서 조리를 했을 경우 원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판별하기는 물론 쉽지 않지만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할때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한 예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명예감시원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경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닭고기 유통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닭고기 수입업체를 철저히 파헤쳐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으며, 수입 닭고기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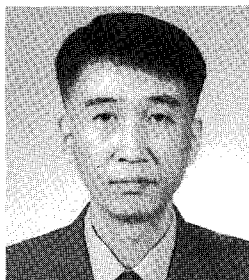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부흥해 육계인들도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높은 닭고기 생산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 역시 지난 1920년대 일제치하에 있었던 몰산장려운동을 상기하여 국내산 닭고기의 애용을 실천해 나아갈 때 국내 육계업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장경쟁의 원리, 수입자유화 등을 통해 특정업체들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선량한 피해자(육계인)가 생긴다면 그 피해자들의 항의와 투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현재 육계업계가 처해있는 위기를 더 이상 바라볼 수만은 없다. 이대로 있으면 자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에 모든 육계관련 업체가 합심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육계인들은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총 단련하고 결집된 힘을 모아 난국타개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최 용 삼
(주)아니커 홍보팀장

업종이 다르기는 하지만, 1980년대에 우유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낙농업이 유망 축산분야로 부상하면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없이 젓소사육이 급증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유의 주 소비 시장 중 하나인 신생아 분유시장이 출산을 저하와 사회단체의 모유 먹이기 운동으로 점차 축소되고 교묘한 형태로 저가의 수입분유가 밀려 들어와 시장을 왜곡시켰다.

우유업계는 제품 다변화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축산농가는 사육두수 조정으로, 심지어는 정부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유소비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 이상 장기 분유적체를 불러왔고 그 현상은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모 업체에서 나온 신제품 하나가 우유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검은콩 우유>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현대인들의 다이어트, 건강회구 심리와 맞물려 가히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현재 10여개의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전체 가공우유 시장을 전년대비 20% 이상 성장시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물론 <검은콩 우유> 돌풍이 과거 <식혜>나 <보리음료>처럼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 영원한 히트상품으로 자리잡을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